

해남쌀로 만든 김밥, 미국 식품박람회 '대상'

현지인 입맛 맞춰 '볶음김밥' 출시... "냉동김밥에 최적화" 군, 오션스헤일로 등과 협업 성과...글로벌 시장 확장 기대

해남쌀로 만든 김밥이 미국 최대 식품 박람회인 엑스포웨스트에서 유기농제품 대상을 수상. 미국 김밥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미국에 해남쌀을 수출하고 있는 팜플항도친환경농조합법인과 오션스헤일로는 수년에 걸친 협업 끝에 미국 시장에 USDA 인증 유기농 김밥을 출시. 2024년 유기농 베지 김밥으로 냉동식품 부문 NEXTY 어워드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유기농 볶음밥 김밥으로 베스트 유기농 제품 대

상을 수상했다. 특히 볶음 김밥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미국내 김밥시장에 현지화 전략을 구상해 건강식으로 유기농, 트랜지한 식사대용 컨셉을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해남쌀로 만든 김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해남쌀로 만든 냉동김밥과 김스낵 등을 수출하고 있는 오션스헤일로는 삼양, 농심에 이어 미국 내 아시안 판매 기

업 중 6위에 오르는 등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션스헤일로의 냉동김밥 해남쌀 판매가 늘면서 해남군에 소재를 두고 있는 팜플항도친환경의 지난해 수출액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해남쌀은 충분히 머물어 단단함을 갖추면서도 자연스러운 윤기와 점성을 지닌 쌀로, 김밥에 익은 듯한 풍미와 기본 좋게 잘린 식감을 특징으로 한다.

냉동김밥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균형을 제공. 냉동과 재가열 이후에도 식감과 결속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남쌀로 만든 냉동김밥과 수출용 쌀

오션스헤일로 공동 창업자인 이신형 대표는 "해남쌀은 대량 생산에도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운송과 보관, 조리

과정을 거친 뒤에도 같은 형태와 식감을 유지하기에 김밥재료로 최적이다"며 "해남쌀로 만든 김밥은 글로벌 시장 확장성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해남군의 역할도 컸다. 지난 2024년 해남군과 오션스헤일로는 양국을 상호방문하며 수출시장을 점검하고, 관련 MOU를 체결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남쌀은 전국 최초로 미국 유통망인 홀푸드에 입점 판매하게 됐으며, 냉동김밥 개발과 미국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볶음김밥 등으로 해남쌀 수출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사회현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선정...사업비 5억 확보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현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영암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군은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최대 3년간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자연마을 단위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주민 참여형 '마을 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은 자연마을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운영 역량 강화와 마을별 맞춤형 모델 구축을 거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 공동작업장 운영,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해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영암형 돌봄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무안군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무안,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총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안전 근무환경 논의

무안군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근로자 정취조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골격계 부담직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현업종사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기구다.

군은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 강화와 위험성 평가 내실화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중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기준에 따라 약 580명의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일시장, 용해동 포미타운, 북항시장, 평화광장 먹자, 서희스타힐스&한양리프스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면적 3만6861㎡, 340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곳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등록시장' 한일시장 등이 포함되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은누리' 앱을 통해서도 디지털(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목포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상권 활력 기대

'미등록시장' 한일시장 제도권 편입...조례 개정 결실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지정하며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한일시장, 용해동 포미타운, 북항시장, 평화광장 먹자, 서희스타힐스&한양리프스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면적 3만6861㎡, 340개 점포)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곳 1558개 점포로 확대됐다.

특히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등록시장' 한일시장 등이 포

함되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해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신속히 확대해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은누리' 앱을 통해서도 디지털(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더 많은 상권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지정된 한일시장 전경.

사진제공=목포시청

완도, 치유 관광 도시 밀그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범우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 관광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치유 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치유 관광산업'은 지난해 4월 8일 '치유 관광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완도의 특화 자원인 해양자원과 산림, 농업 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치유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완도군의 관광 여건을 바탕으로 치유 관광산업 중장기 비전·발전 전략, 해양자원 기반 차별화된 치유 관광 모델 개발, 치유 관광산업 지구 지정 및 우수 치유 관광시설 인증, 국가 정책·공모 사업 통한 자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과 치유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